현안과제연구

2011. 6. 30

도농 균형발전 위한 도농상생 협력방안

- 도·농교류를 중심으로 -

연구수행: 김정연

CDI 충남발전연구원

목 차

1. 서 론 ····· 2

2. 도·농교류의 의의와 주요 내용 ····· 3
1) 도·농교류의 개념 ····· 3
2) 도·농교류의 필요성 ····· 4
3)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 4
4) 도·농교류의 유형 ····· 5
5) 도·농교류의 기대효과 ····· 6
6) 도·농교류의 관련제도 ····· 7
7) 도·농교류의 정책현황 ····· 9

3. 도·농 상생 협력 방향 ····· 10
1) 도·농 상생 협력 기본방향 ····· 10
2)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대상영역의 분류 ····· 11
3) 도시와 농촌의 상생 협력 추진방안 ····· 12

4. 도농간 상생협력을 위한 주요 제안시책의 세부내용 ····· 15
1. 지역순환 농식품경제 구축 관련활동 지원
2. 농촌사랑카드 발급
3. 농촌관광마을 표준화(인덱스) 시스템 구축
4. 녹색휴가 캠페인(休~ Green!)
5.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충남을 중심으로)
6. 소비와 생산의 통합 도·농협동조합법인 설립
7. 농어촌유학을 통한 도·농 상생발전 방안
8. 귀농·귀촌가족 영농정착 맞춤형 교육 지원
9. 초·중·고 창의적 체험(생태관광 등)활동 활성화 방안
10. 공정여행 도입을 통한 체험마을 관광객 및 소득 증대
11. 도·농 상생을 위한 아토피 예방관리 추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 도·농교류를 중심으로 -

1. 서 론

○ 도시와 농촌은 제각기 매력요인과 결핍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교류를 통해 상대적인 결핍요인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 도시는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교통기반 및 문화환경 측면에서는 선진화되고 있으나 인구 집중, 교통체증, 자연 녹지공간의 부족과 환경오염, 누적된 스트레스의 일상화, 수입농산물의 범람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반면에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지고, DDA 협상,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사정은 어려워지고 있으나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환경보전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지역의 활력, 농외소득, 농산물의 판매를 통한 소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도시의 경우 여유로운 여가활동, 전통과 문화 체험 및 교육, 안전한 농산물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농촌의 교류라 함은 상호관계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다.

○ 그러나 농촌 측에서는 어떤 수요를 가진 도시민들이 농촌과 어떤 교류를 원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도시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농산어촌 체험 및 교육, 여행 등을 보내기 위해서 농촌과 자매결연을 원할 경우 농촌과의 자매결연 형태가 어떨 것인지 그 정보 유형과 교류형태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2. 도·농교류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도·농교류의 개념

○ 도시와 농촌이 어떤 식으로든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간의 교류, 정보, 문화, 서비스, 물품 및 자본 등을 나누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농교류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도농교류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농촌의 활성화와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교류에서부터 농산물이나 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므로 녹색관광이나 농촌관광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도농교류의 개념 정의 비교

(1995)	
(2000)	
(2003)	, , , ,
(2003)	, ,
(2006)	/ , , .
(2007)	. , , . , .
(2008)	, . . . , ,

2) 도·농교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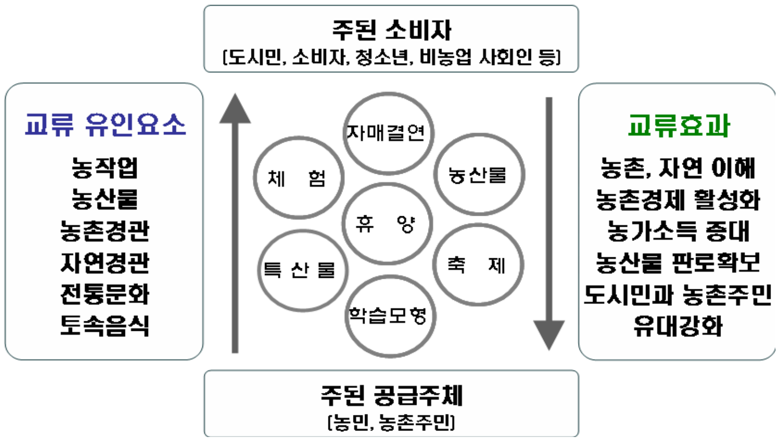
○ 도농교류가 기본적으로는 농촌의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생태·문화 자원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의 공생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이러한 의의는 다음과 같은 도농교류의 목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도농교류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농민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 인위적·사회경제적으로 형성된 농민과 도시민,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의식과 정서적 장벽을 허물어 '동등 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공생관계'를 만드는데 있다. 이에 비인간적인 도시 생활과 산업화에 대응해 자연과 농업, 전통문화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3)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 도농교류의 구성요소는 수요자로서의 도시민과 공급자로서의 농업인 및 농촌주민이라는 교류주체와 농작업, 농산물, 농촌경관, 전통문화와 지역특산물 등과 같은 교류유인요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활동 및 과정, 그리고 교류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 도농교류가 성립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인 교류주체와 교류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도농교류의 주체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3> 도농교류 공급 측면에서 농촌이 갖추어야 할 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도·농교류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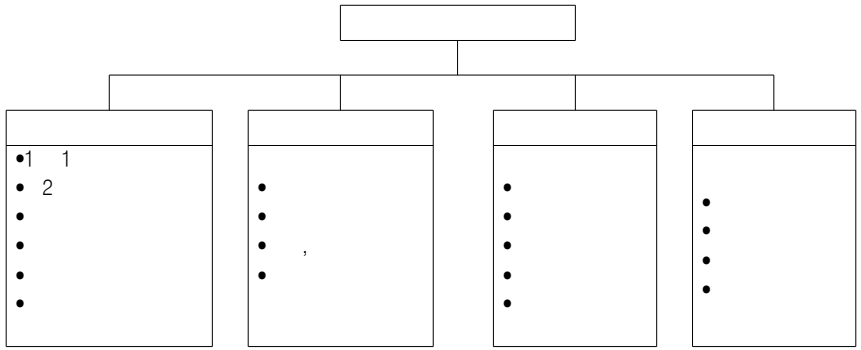
○ 도농교류의 유형은 자매결연형, 상품거래형, 농촌문화교육형, 농촌관광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자매결연형은 사회적 교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 1사 1촌운동, 제2고향갖기 운동, 고향방문행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의 순환지원, 일손돕기 등이 있다.

○ 상품거래형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및 특산물거래, 농지나 주택의 거래, 농촌지역 개발투자 상품의 거래 등이 있다.

○ 농촌문화교육형은 농촌의 생활문화 및 환경에 관한 교육으로 전통체험교육, 농사체험교육, 농촌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이 잇다.

○ 농촌관광형은 일종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교류로서 농촌관광휴양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공급과 도시민의 향유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농촌관광형 도농교류의 대표적이 예로는 농촌휴양관광이나 농촌체험관광을 들 수 있다.



[그림 2] 도농교류의 유형

5) 도·농교류의 기대효과

○ 도농교류의 기대효과

도시민의 입장	농촌주민의 입장
• 농업·농촌의 가치인식 및 자녀교육 효과 • 소비자 교육이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만족 및 고향사랑 • 안전한 먹거리 조달 • 농촌주민의 소득향상 • 기타	•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 안정적인 홍보 및 판로확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 • 소비자 교육이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만족 및 고향사랑 • 기타

○ 도농교류의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 지역 특산물의 새로운 판로확대 • 방문객의 유치에 의한 소득 효과 • 지역 인구 감소(율) 억제 •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 교류선이나 기업들의 각종 투자유치 • 기타	• 지역외부에 지역 팬의 확대, 지명도 상승 • 문화교류의 활발화 • 지역담당자(리더)의 확보 • 주민의 지역에 대한 인식향상 • 인적네트워크의 확대 • 도시주민의 이·정주확대 • 선진문화와의 접촉기회 확대 • 기타

6) 도·농교류 관련 제도

○ 2008년부터 시행중인 도농교류촉진법의 기본체계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 가본이념, 정책과제, 정책수단, 정책추진체계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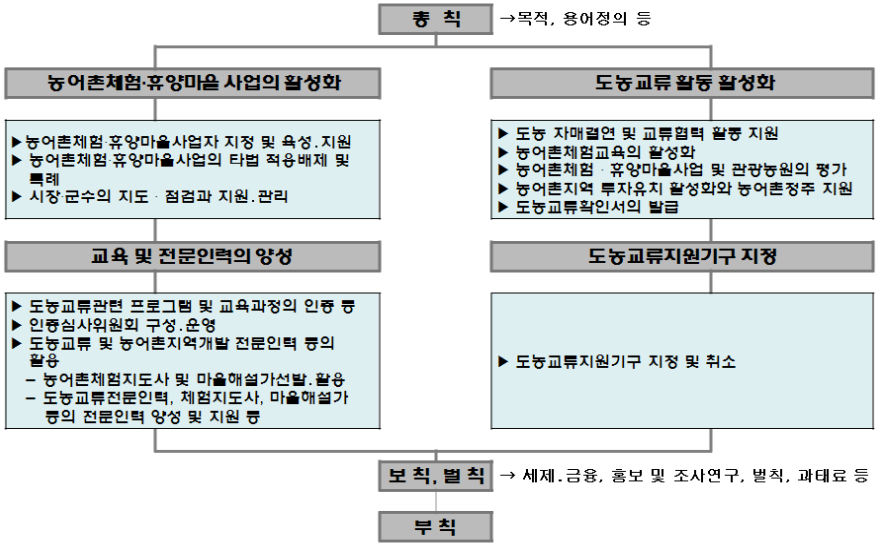
<표 4> 도농교류촉진법의 기본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농교류촉진법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 등

크게 4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육성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타법 적용배제 및 특례(공중위생관리법 적용배제 등), 시장·군수의 지도·점검과 지원·관리
- 둘째,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농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협력활동지원,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의 평가,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농어촌정주 지원,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등
- 셋째,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도농교류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선발·활동, 도농교류전문인력,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
- 넷째,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취소 등



7) 도·농교류 정책 현황

○ 국내 도농교류 정책은 1984년부터 시작된 관광농원사업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의 틀 내에서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사업, 농어촌휴양단지사업, 농촌민박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을 시작하였다.

○ 1999년부터 농·소·정협력사업[1]이 시작되면서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고, 충청북도, 강원도, 순창군, 무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발전계획 수립에 도농교류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2]

○ 농·소·정협력사업은 2008년부터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대상사업은 농어촌 체험사업(농어촌 일손돕기, 농사체험, 친환경농수산물 체험), 농어촌지키기사업(농어촌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직거래전시판매, 전통문화공연), 농어촌알리기 사업(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및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 등에 대한 교육), 농어촌폐교공간 활용사업(폐교를 활용한 체험학교에서 전통음식, 공방 등을 하거나 인근 농산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체험활동하는 것) 등이다.

○ 도농교류는 농어촌관광의 개념을 도입하는 형태로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2000),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002),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2002),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2001),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1996), 농협 '팜스테이마을'(1998)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 35개 단체를 1999년 사업자로 선정하여 도시민들이 농업인과 직접 교류하는 농촌현장체험, 도시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벼 포트 지원,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와 직거래사업,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사업, 국민실천운동 등 다양한 사업 지원.

2) 김병률 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C20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7.

3. 도·농 상생 협력 방향

1) 도·농 상생 협력의 기본방향

○ 최근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도농상생"은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통하여 "다 같이 잘되기 위해 서로 협조하자"는 의도로 내세운 것으로서 상호대등한 호혜(互惠)의 원칙하에 도시와 농촌간에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

○ 이에 더하여, 수도권 일극 집중 강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교육·복지·생활환경 격차가 심화되어 많은 농촌지역에서 공동체 해체의 위기까지 겪고 있어, 이제는 도농 상생의 필요성, 가능성, 실천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 특히, 그동안 산업사회에서의 농촌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식량공급기지, 노동력의 공급원 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의 사회통합과 상생의 사회적인 트랜드에 맞게 농촌 위치를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인간은 인생의 한 시기에 어떤 식으로 농촌에 관계하며 그 경험에 의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와 협력 의식이 높아진다.

- 유년기(농촌체험)→청소년기(농촌캠프/농어촌유학)→청장년기(농촌에서의 여행/휴가)→**노년기(귀농/귀촌)※ Life-Cycle**에 농업농촌의 역할 제고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도농 상생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고, 범 사회적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도농 균형과 상생의 사회로 전환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첫째, 도시와 농촌은 경쟁상대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로서 인식 전환
- 둘째, 도시와 농촌 문제의 상호 호혜적인 해결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셋째,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역할 재조명
- 넷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농 상생의 이슈화
- 다섯째, 도농의 상생 협력에 의한 새로운 미래산업과 일자리 창출

2)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대상영역의 분류(예시)

	(~ Green) 5 2 1 1	
	( ) ( ) ( ) 8 – bar'	
	( )	

3)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추진방안

○ 근래 들어 농촌지역에서 순환형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 상생을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전국적 확산과 협력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농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프로그램, 사업, 제도 등)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 재분류 시에는 '농촌에서 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도시에서 농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농촌에서 도시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예시)〉

- 좋은 농식품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와 전통음식 제공
- 문화관광/환경(쾌적한 환경과 휴양, 전통문화) : 체류형 여가, 전통문화체험, 농작체험, 아토피 치유, 노인요양, 문화예술 공간 제공
- 교육 : 자연/농촌체험, 현장학습, 산촌유학, 식생활교육, 도시농업 지원 등
- 도시의 과밀인구 흡수기능 : 귀농·귀촌자를 위한 정주공간 제공, 농촌 일자리 제공 등

〈도시가 농촌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예시)〉

- 소비자/소비처의 안정적 농식품 구매 : 특히 로컬푸드/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의 구매, 학교급식 등에 안전한 농식품 구매, 2차산업(가공)과 3차산업 (요식업, 급식업)의 안정적 구매
- 도·농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장터 활성화
- 관광, 휴양, 여행(공정여행 등)을 통한 농촌소득 증진 (농촌공간)
-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 (특히, 교육/의료 같은 전문인력 제공)
- 기업의 사회적 공헌 : 지속적인 농촌교류(1사1촌)를 통한 농식품 구매 및 인력/서비스 제공, 기금 제공(장학금 등)

○ 이와 같은 최근의 다양한 시도들이 재분류되면 우선순위, 추진단계, 추진방법, 추진주체, 제도적 보완 사항,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판단과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현재까지도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교류, 도농통합 관련 실천수

단들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가급적 모두 파악하여 '그대로 추진할 것, 개선 또는 보완할 것, 폐지할 것, 새롭게 도입할 것'들로 분류하여 우선순위 또는 추진단계를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한다.

○ 도시와 농촌에서 지원 가능한 시책분야의 대부분이 도·농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일방향적인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농간 교류를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사업은 상호보완, 공생관계, 양방향적, 상호만족 등의 관계 속에서만이 성공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동안 도농교류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농촌속에서 농촌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서 농촌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정책제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도시지역에 『도·농상생 지역순환 농민장터』 설치

- 도농교류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생산-지역소비를 전제로 로컬푸드 운동과 결합되어 한다. 도시지역에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농민장터 개설

(예)농민장터 '마르쉐 재펜' :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원하는 도시주민 참가형 시장)

② 『초·중.고생 농산어촌 체험학습』 현실화

- '09년고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농산어촌 체험학습 분야가 실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농촌에 대한 **Life-Cycle**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시지역 교육청과 협약을 통한 체험학습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③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활성화

- 도시의 공교육 및 환경문제와 농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사회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서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지원 시스템과 법령 마련

④ 『녹색휴가 캠페인(休～ Green)』 전개

- 도시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농촌관광에 대한 붐 조성을 위해 여름철 휴가시즌 전에 도시민 수요층을 복잡한 유명 휴양지에서 농촌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운동을 전개

⑤ 『도시 빈곤계층 귀농귀촌 종합대책』 공동 마련

- 사회문제중 하나인 도시 빈곤계층의 해결책으로 귀농귀촌 유도를 통한 빈곤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도시민 유치 차원에서 종합대책(제도)을 공동으로 마련

○ 이상과 같이, 도시가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도농 상생 정책은 제도화되고 재정이 뒷받침된 시책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1차, 2차, 3차 산업의매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 과밀화, 안전한 먹거리 욕구증대, 도시교육의 문제, 도시 빈민 구제 등의 문제를 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정책개발 자세가 요구된다.

4. 도농간 상생 협력을 위한 주요 제안시책의 세부내용

1. 지역순환 농식품경제 구축 관련활동 지원

1) 필요성과 여건

○ 민간 주체들의 도농상생-지역순환 농식품경제 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충남 농식품경제의 도농간 연결과 단계간(생산-유통-가공-판매) 연계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함.

- 특히, 관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임

○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 및 도농교류 관련 활동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출연 공익재단 등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 농무부, 일본 농림수산성, 이탈리아 중앙정부, 영국 로컬푸드 재단 등

○ 도농교류-식생활교육-학교급식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지역순환 농식품경제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추진, 관리할 필요

○ 농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참여 뿐만 아니라,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 유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함.

- 기업, 학교, 병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관광 및 요식업 등

2) 사업제안

①「도농상생-지역순환 농민장터」 운영

- 거점 도시지역에 지역 사업자를 선정, 「도농상생-지역순환 농민장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사업 시행(일본의 마르쉐 재팬 사례)

② 기존 유통시설들의 도농상생-지역순환 관련 기능의 강화: 관련 주체들과의 논의를 통한 협력 요청

-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지 농특산물 직판장 정비
-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및 파머스마켓 매장의 도농상생-지역순환 실현
- 지역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농상생-지역순환 강화

③ 가족소농들의 도농상생-지역순환 강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활동 지원

- 지역사회지원농업(CSA), 농민장터 참여 및 이를 위한 농가 1차가공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④ 도시지역에서의 도농교류, 지역순환 및 식량권 보장활동 지원사업

- NGO, 사회적기업, 기업, 병원, 생협, 음식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유통·소비·교육활동들에 대한 포괄적 사업지원
-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활성화

⑤ 친환경 무상급식, 식생활교육과의 연계

- 친환경 무상급식의 도농상생-지역순환 강화 지원
- 식생활교육기본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지역 내 다양한 식생활교육-도농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⑥ 5都2村-도농교류 기반의 도농상생-지역순환 활성화

- 5都2村-도농교류 인증마을 육성 및 지원, 체계적 관리 및 육성
- 3번 사업의 마을단위 지원사업

⑦ 향토산업의 도농상생-지역순환 연계강화 지원사업

- 기존 향토산업(특산물 및 향토음식의 생산, 가공, 유통)의 지역연계 고리 및 지역전통 연관성에 대한 검토와 취약점에 대한 지원

⑧ 광역 및 기초 「도농상생-지역순환 지원센터」 설립

- 관련 활동(도농교류, 식생활교육, 학교급식, 농어촌유학 등)에 대하여 도농상생-지역순환 관점에서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목적

⑨ 「도농상생-지역순환」 교육 및 홍보사업

- 관련 주체들에 대한 교육사업: 농협,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급식 영양사, 지역리더 등(기존 교육프로그램에 추가하는 형식)
- 홍보 리플렛 및 책자 제작, -「도농상생-지역순환」 홍보 축제 시행

(10) 지역화폐 도입

- 도농상생-지역순환 활동의 장려를 위한 지역화폐의 도입: 탄소마일리지 적립제도와의 연계 운영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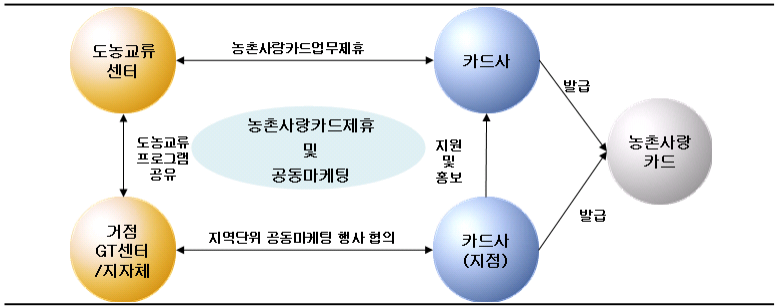
○ 도농상생-지역순환 관련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민 건강의 증진, 지역환경의 보전, 사회복지의 강화, 가족소농의 소득안정화, 식생활교육의 증진 등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농촌사랑카드 발급[3]

1) 개념과 절차

○ 금융사 카드상품 개발팀과의 제휴를 통한 농촌사랑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농촌사랑카드 활용을 통한 소비금액의 일정 적립금을 고향숙원사업 기금 마련에 활용(농촌사랑적립금 제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카드사(지점)와 공동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 농촌사랑카드 추진절차

2) 농촌사랑카드 활용방안

○ 농촌사랑카드 발급 시 개인이 고향계좌(카드사 지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용한 농촌사랑적립금의 누적금액과 적립금(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농촌관광포털사이트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황길식, 한국형 그린투어리즘과 도농교류 추진 전략, 도·농교류 활성화 포럼-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교류 촉진 방안-,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 2005. 4. 29, pp.57-93.

3) 농촌사랑카드 홍보대사

○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농촌사랑카드를 홍보하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예, 최불암, 김혜자 등 전원일기를 통해 익숙한 모델을 홍보대사로 활용)

4) 유사사례

○ 경기도 안성시의 안성맞춤 신용카드 발급과 강원도 화천군에서 실시했던 KB카드와의 2005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 민관 공동 마케팅을 꼽을 수 있다.

<표 > 안성시 지역카드 사례

- 안성시에서는 농협안성시지부와 BC카드 수원지점과 협의하여 "안성맞춤 신용카드를 신규, 갱신, 추가 형태로 발급 실시(2005년 2월 1일부서 서비스 개시)
- 발급대상은 안성시민 및 출향민이며 연간이용금액의 0.1~0.2%를 캐쉬백 현금적립형태로 안성시에서 돌려받아 각종 시민편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카드의 혜택은 기존의 혜택인 주요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SK주요소 리터당 40원 할인 등의 혜택이 유지되며 전국농협매장 2%할인 혜택이 추가됨

<표> 화천군 공동마케팅 사례

화천군과 국민은행 KB카드 공동마케팅

- 화천군에는 기업 회원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를 홍보하고, 화천의 어메니티 자원은 물론 특산물, 먹거리 등을 판매
- 기업은 회원들에게 감성마케팅을 통해 추억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
- 민간기업 : 국민은행 KB카드
- 지자체 : 화천군
- 주 최 : 화천군/화천군번영회
- 주관 : 화천나라축제조직위원회
- 행사기간 : 2005.1.7~1.30(24일간)
- 행사대상 : KB카드 전회원
- 행사내용 : KB카드 결제시 유료행사(산천어 얼음낚시터 /루어낚시터)참가비 및 직영 물빛누리식당 구매금액 10%할인

5) 기대효과

○ 농촌사랑카드 발급을 통한 공동마케팅 강화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인 관심의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농촌사랑적립금을 통한 고향발전 기금마련의 동참 캠페인 유도로 농촌사랑에 대한 사회적인 붐을 조성할 수 있다.

3. 농촌관광마을 표준화(인덱스) 시스템 구축

1) 필요성

○ 현재 농촌관광 마을에서는 민박, 체험장 등의 시설물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 미비로 방문객과의 원활한 정보전달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개책으로 농촌관광마을의 시설물과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표준화 시스템의 도입은 식별성과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한 각 아이템별 인덱스화를 통해 표준화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 추진전략

① 가독성과 식별성을 높인 아이템의 인덱스 표준화

○ 안내표지판, 민박, 체험장 등 시설물의 유형별로 인덱스화하여 방문자에게 편리한 식별성을 제공하고, 전국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일성 부여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② 체험 가능한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도 확보

○ 농촌에서 체험 가능한 상품에 대한 자격요건과 승인절차 등의 품질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인증된 상품에 대해 인덱스마크를 부착하고, 마을에서 체험 가능한 상품을 유형별로 단순화 시킨다.

3) 추진방안

① 표준화작업 수행기관 선정

○ 농식품부에서 농촌관광마을의 시설물에 대한 유형별, 체험별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며, 선정절차는 제안서를 통한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농촌관광마을 표준화 품질인증

○ 농식품부에서 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품질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표준화 품질인증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학계, 업계, 언론계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 농촌관광을 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표준화를 위한 품질인증 절차를 실행한다.

③ 농촌관광마을 시설물 및 관광자원의 인덱스마크 표준화

○ 농촌관광마을의 시설물, 관광자원의 인덱스마크 표준화를 통하여 방문객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마을의 시설물 및 관광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목록화시키는 작업이 수행 되어야 한다.

<표> 농촌관광마을 시설/자원 목록화

시설/자원 유형	시설/자원 세부목록
인프라	안내간판, 안내소, 화장실, 마을회관, 정보센터, 농산물 직판장 등
숙박시설	펜션, 농가민박, 캠핑, 오토캠핑 등
체험시설	도자기 체험장, 과수 체험장, 농작물 체험장, 가축 체험장 등
먹거리 시설	식당, 바베큐, 유기농 농산물 음식, 약선 요리 등

④ 표준화 시스템의 사후관리

○ 년 1회 또는 2년에 1회에 걸쳐 표준화 품질인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덱스 마크 취소 등의 제제를 가한다.

⑤ 표준화 사례(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농촌관광상품의 품질을 유지, 감독하기 위해 브랜드화된 농촌관광 숙박 시설의 경우 농업관광협의회(Bienvenue a la Ferme; BF)에서 규정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서비스유형에 따라 숙박, 음식체험, 농업체험 등의 9가지 유형을 지정하고 각각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 프랑스 농촌관광마을 인덱스 사례

숙박제공	농가음식 체험	농가 특산품	승마	어린이 농장체험	농업 체험	사냥	가족단위 농가체류	농가부근 캠핑

4) 기대효과

○ 표준화 시스템 구축 및 품질인증제를 통해 농촌관광마을의 시설물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농촌관광마을의 시설 및 관광자원을 인덱스마크로 표시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관광 인지도 제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또한, 표준화 시스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체험상품의 품질 유지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4. 녹색휴가 캠페인(休~ Green!)

1) 필요성

○ 농촌관광에 대한 붐조성을 위해 도시민들에게 농촌공간에서 저비용의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여름철 휴가시즌 전

한 농촌방문보다는 체류형 농촌관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2) 추진전략

① 녹색휴가 캠페인 (休~ Green!)을 통한 저비용 휴양지로써의 농촌 홍보

○ 농촌관광에 대한 가족, 기업, 단체 등 범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 휴식, 휴양, 어메니티, 체험, 교육을 융합한 휴가 자원으로써 농촌마을을 부각시키는 캠페인 홍보안을 마련하고, 녹색휴가 캠페인 참가 마을 선정 작업을 통한 공급자(캠페인 참가 마을)의 참여율을 확대한다.

② 사전 녹색휴가 예약제 도입

○ 사전 녹색휴가 예약제를 도입하여 도시민의 녹색휴가 참여를 유도하고, 캠페인 참가 마을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사전예약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캠페인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한 도시민에게는 휴가비용의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3) 추진방안

① 休~ Green!(녹색휴가 캠페인) 전개

<표> 녹색휴가캠페인 주요내용

캠페인 명	休~Green(녹색휴가 캠페인)
캐치프레이즈	"Go! Green Holidays" / 기분 좋은 변화! 녹색휴가는 농촌에서~
마을선정	休~Green!(녹색휴가 캠페인) 참가마을 접수 접수처 : 농촌관광포털사이트 "休~Green!(녹색휴가 캠페인)"코너
실시시기	매년 5월1일~6월30일
실시지역	전국(지하철 일부 대도시)
홍보 (활용미디어)	온라인미디어 활용(1사1촌 사이트,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 방송 및 언론매체와 연계한 休~Green!(녹색휴가 캠페인)전개 지하철 2호선(녹색라인), 버스, 옥외광고 등을 이용한 캠페인 홍보

② 사전 녹색휴가 예약제 추진과 마을 인센티브 제도

○ 사전 녹색휴가 예약제를 통한 도시민의 사전 휴가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약제 기간 중 사전 예약/입금 도시민에게 휴가비용 할인 혜택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권, 농산물구매권 등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 또한 캠페인 실시 후 가장 많은 도시민과의 교류 실적이 있는 참가마을에 "休~Green! 대상" 포상 및 다음 년도 "休~Green! 캠페인 홍보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마을 자체적인 마케팅 노력을 제고한다.

③ 녹색휴가 프로그램 보급

○ 사전예약을 통해 입금된 금액을 참가마을에 선지급 함으로써 농외소득 정체를 해결하고 서비스 참여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호응도, 참여도를 증대시킨다.

○ 또한 기업, 학교 등에 체류기간별 녹색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기업과 마을간의 타임쉐어링(Time Sharing) 방식의 도입으로 마을내의 민박, 교육시설, 휴양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계약(휴가시즌 등)체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녹색휴가 캠페인을 진행한다.

4) 기대효과

○ 하계 휴양지의 혼잡도 증가를 완화하고 농촌지역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대안적인 휴가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休~Green! 대상" 포상 및 "休~ Green!(녹색휴가) 캠페인 홍보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참가 마을별 자율 경쟁 및 마을 자체 마케팅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향후 캠페인에 참여한 농촌방문 도시민, 기업 등의 DB를 활용하여 2차 캠페인 및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고객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확대도 가능하다.

5.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충남을 중심으로)

1) 필요성과 여건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서별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
※'03년까지) 23개소→'08년까지)139개소로 5년 동안 120여개소 증가

○ 반면, 체험마을 운영주체 및 마을주민의 서비스 교육 미흡
- 농촌문화과정(기술원), 농촌지역개발 및 마을동기화과정 교육(농어촌공사)

○ 지리적 계절적으로 단순·유사한 체험프로그램 운영됨에 따라 도시민 유치 경쟁 심화
- 농촌지역(농사체험, 농산물수확체험 등), 산촌지역(산나물채취, 임산물수확체험 등), 어촌지역(갯벌, 염전, 낚시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지역별·계절별 특색을 갖춘 체험프로그램 부족,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이 시급

○ 농산물 직판농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초기의 형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점차 농촌휴양형,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자연학습형 등 기능 중심의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
- 농업·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고객층인 도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농어촌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이상과 같이 농촌 체험·관광 수요와 공급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할 만한 농촌 내부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마을 및 외부(행정, 전문기관 등)와의 다양한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고도화해 나아갈 필요성이 크다.

2) (사)충남 녹색체험마을협의 추진현황

○ 충남 체험마을 협의회 구축을 위한 발기인 구성
- 14개 시·군 대표자(14명)

○ 1차 발기인 모임(2009. 12. 16)

○ 충남 녹색체험마을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 모임(2011. 5. 12)
- 44개 마을 참여

○ 충남 녹색체험마을협의회 창립대회(2011. 6. 29 예정)

○ **(사)충남녹색체험마을협의회의 주요 기능**

① 협의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② 농촌체험마을회원의 사업경영과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정보 교환
③ 홈페이지 관리 및 제작 운영
④ 참여희망 마을 및 주민에 대한 그린투어 운영기술의 연구개발 보급과 교육
⑤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⑥ 각종 홍보물 등 자료의 제작과 소식지 발행
⑦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
⑧ 기타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방안

○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확대
- 1단계 : 마을별 조직체계 구축
  · 마을대표, 사무장, 추진위원, 체험분담 영역 참여 주민
- 2단계 : 시·군별 체험마을(녹색, 산촌, 어촌, 전통테마 등) 네트워크 구축
  · 시·군 40%는 추진
- 3단계 : 시·도 체험마을 네트워크 구축
  · 충남녹색농촌체험마을 협의회 구축 중(전국에서 가장일 먼저 시도)
- 4단계 : 시도 각 체험마을 협의회 대표, 행정공무원, 관광업체, 교육청 등 협의체 구축이 장기적으로 필요.

○ 협의체 자체 활동의 단계적 강화
- 체험마을간 상생유도 : 체험마을간 공동체 의식 강화
- 선진마을과 미흡마을간 정보 교류하여 win-win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충남녹색농촌체험마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홍보 실시
- 시·군(마을간) 체험관광 연계

○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한 행정 및 전문기관 지원

- 미흡마을 및 신규 조성마을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 자문, 수범사례 등 전파할 수 있는 사업추진
- 교육청, 충남녹색농촌체험마을 협의회, 여행사연합회, 블러거, 기자단 등과 MOU체결하여 홍보 주력사업 추진
- 행정기관과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녹색체험마을 네트워크의 시장조사, 공동 마케팅, 사업안내, 회원관리, 사업자 교육, 컨설팅, 품질관리 및 예약시스템 운영, 정보제공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

· 농업인들은 대부분 마케팅, 경영, 회계, 시설계획 등 핵심역량이 부족하므로 사업자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평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6. 소비와 생산의 통합 도·농협동조합법인 설립

☐ 도·농교류의 현실태

○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간의 도·농교류는 서로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도·농교류로 볼 수 없고,

○ 이러한 도·농교류는 이해관계에 의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간에 중단되는 등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는게 현실임

☐ 상생의 도·농교류 방안

○ 최근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도시민들의 공동체 추구형태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ex. 한살림, 생협연대 등)

☞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상호 출자를 통한 **"도·농협동조합법인 설립"** 운영

☞ "서천군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도 소비와 생산의 통합체인 도·농협동조합법인 형태로 운영이 바람직함

☐ 기대 효과

○ 도농교류의 문제점인 지속성과 참여도 제고

○ 도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직접 참여로 신뢰성 제고

○ 농산물소비가 곧 소비자인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정책으로 전환

☐ 관련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그동안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던 도·농교류를 지원하는 근거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조합의 활동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 내 인정하고 조직운영 등 소극적인 내용만 규정(상생을 위한 교류를 위하여 조합원의 자격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출자 등에 의한 통합 규정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현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생협 등에 도시민도 출자나 운영에 쉽게 참여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농 교류에 참가하여 진정한 도농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7. 농어촌유학을 통한 도·농 상생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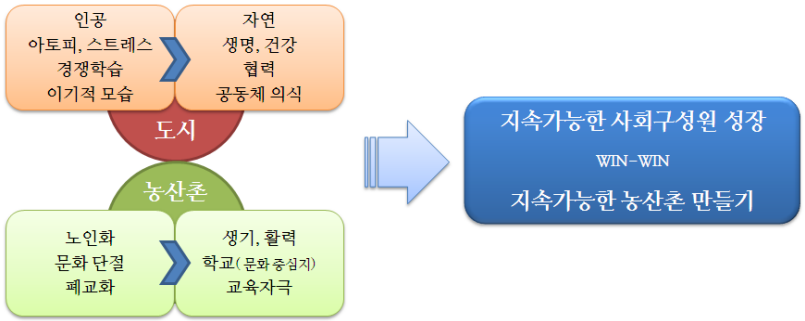
※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시골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 학교를 다니며, 6개월 이상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의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 추진목적

○ 도시의 공교육(제도권) 및 환경 문제와 농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와 지역침체가 야기되는 사회현상의 대체로 농어촌유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농산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폐교 및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지역아이들에게 공동체 문화와 협동심,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함

○ 유학생을 위한 유기농, 친환경식단 제공으로 주변 마을에 친환경농사 유도, 생산물을 도시 방문객(학부모)에게 직거래를 통한 도농교류를 유도하고자 함



☐ **농어촌유학 국내사례**

○ 국내에서 2006년부터 본격 도입되어, 2011년 현재 약 25개 운영(센터형 9개소, 농가형 16개소)

○ 주로 초등학생으로 년 300여명 참여

○ 일부 지자체 조례화 추진중(울산 울주군, 강원 양양군)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센터형 지원사업 진행

☐ **추진방안**

○ 지역내 폐교 및 마을공동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기반구축

- 귀농귀촌 연계 모델 : 농어촌 유학을 계기로 부모들이 귀농·귀촌을 하여 마을 공동체 형성
- 도농교류 활성화 모델 : 유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으로 지역과 학부모간의 농산물 유통, 지역 축제 운영 등 도농교류 활성화
- 유한센터 고급화 모델 : 도시수준의 학습 및 여가프로그램 확충

○ 지역의 인문, 자연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우리 군의 경우 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과의 연계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교육시스템 구축

○ 지역민 소득화 전략

- 유학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직거래 판매망 구축 및 소득창출
- 지역 먹거리 중심으로 소비하여 지역 경제 구성원으로 역할

☐ **기대효과**

○ 농어촌유학을 통해 낙후되어있는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의 공존과 상생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

○ 생태적 유기농 먹거리와 특성있는 지역문화, 농촌유학 등의 마을 구미기를 통해 도농간의 교류 활성화로 귀농, 귀촌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 기대

8. 귀농 · 귀촌가족 영농정착 맞춤형 교육 지원

☐ **추진목적**

○ 서천 귀농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귀농·귀촌 의향자에게 서천의 귀농여건 설명과 현장교육 실시

○ 귀농·귀촌 가족의 농촌 생활적응 및 농업기술 교육으로 농가 소득원 개발 등 성공적 영농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미래 농촌의 후계농업 인력 육성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동법 제7조

○ 서천군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

☐ **추진방안**

○ 추진방향

- 예비귀농인의 귀농초기 농촌지역사회 생활적응과 농업이해, 귀농투어를 통한 안정적인 농촌정착 설계 지원
- 귀농인 유형별 맞춤식 지원팀 구성,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참여 유도 및 농장방문 실기교육 등 현장기술 교육 강화
- 귀농인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실용교육 추진
  · 김장용채소재배, 양념채소재배, 소형농기계교육 등
- 귀농인 생산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교육
  · 두부 또는 장류 제조기술 교육 등
-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성공한 귀농선배 등 지역 리더와 귀농가족의 멘토링 운영으로 현장 밀착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예비귀농인 영농현장 체험 교육

·대 상 : 농촌으로 귀농귀촌 계획 도시민

·인 원 : 200명 내외/5회(40명/회)

·장 소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서천군귀농지원센터, 멘토 및 우수귀농인 농장 견학

·내 용 : 귀농의 이상과 현실, 귀농사례, 농사 체험활동, 농촌 및 마을 주민과 친해지는 계기 마련 분야별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가 육성

- 영농정착 귀농인 맞춤형 기술교육

·대 상 : 서천군 거주 귀농인

·인 원 : 150명 내외/년

·횟 수 : 5회/년 (30명/회)

·장 소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서천군귀농지원센터, 멘토농가 및 선진지 영농현장

·교육내용 : 기술수준별 맞춤형 교육 추진

〈초급반〉 귀농가족 농촌생활적응 교육 및 농업정책 이해 작물재배, 토양관리, 농기계 등 기초능력 배양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지역학습단체 등 지역의 리더와 멘토링 지원

〈전문반〉 소득작목, 시설재배, 친환경농업, 식품가공 등 전문과학영농 기술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분야별 전문가 양성

9. 초·중·고 창의적 체험(생태관광 등)활동 활성화 방안

☐ **협력방안**

○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도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 현장 학습시 체험활동 교육장 제공, 교통수단 및 상해보험 지원
- 초중등학생 현장학습 과정 이해 출장 일일교사, 해설사 지원

○ **도시지역 학교에서 농산어촌마을 현장 활동 부분**

-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농산어촌지역 우선 추진
- 학교와 마을간 협약을 친환경농산물 급식 의무화
- 농산어촌 학교 도시문화, 예술, 공연 체험 활동 지원

☐ **정책제안**

○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현실화**

- 농산어촌체험마을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 과정 연간 **수업시간 편성**
- 학교 학생 농산어촌체험마을 협약 **교육청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학습 운영 과정 편성시 분기별 1회 이상 권장
-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학교 선발 중앙경진(학교,교사) 인센티브 지원
- 농산어촌 체험활동 담당 멘토 교사 인세티브 제도화

☐ **농산어촌 체험마을 교류 지속화**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 농산어촌체험마을 연차별 교류 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 **서천군 창의체험학습 사례**

○ 농어촌 현장체험교육 학습 공동협력 협약

- 서천군 : 서천교육청 - 2008. 9. 11.
- 서천군 : 충청남도교육청 - 2009. 7. 31.

○ 서천군 학교 및 학생 현황

구분	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34개교	18	9	7
학생수	6,836명	3,032	1,800	2,004

☐ **서천교육지원청 사례**

- 창의현장학습 계획수립 및 추진 우수사례 발굴 적극적인 현장학습 유도
- 서천군과의 주기적인 모임으로 학습과정 프로그램 수정 및 개발 등

10. 공정여행 도입을 통한 체험마을 관광객 및 소득 증대

○ **배경**

- 체험마을 관광상품 운영에 공정여행을 도입하여 도농 상생발전 마련

○ **추진방안**

- 생태관광에 기반을 둔 공정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생태관광+공정여행의 개념으로 마을의 생태자원을 이용한 체험을 개발하고 그 마을 내에 수익이 올 수 있도록 운영
• 부가상품 연계방안 마련, 즉 민박 및 식당 등의 이용이 되어 마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추진

11. 도·농 상생을 위한 아토피 예방관리 추진

☐ 추진목적

환경오염 및 식습관의 변화로 매년 증가하는 아토피질환에 대응 질환 예방과 증상개선을 위한 어메니티 서천의 친환경 유기농 및 생태환경 체험 등 자연친화적 치유방법의 도입을 통한 자연건강생활 활성화로
·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
○ 서천군 농어촌관광사업 지원 조례

☐ 추진방안

1) 단기적 방안

○ 지역사회 아토피 네트워크 구축
- 구축기관 : 의사회, 영양사회, 교육지원청, 학부모회, 친환경농림과, 생태관광과, 생태도시과, 귀농인 협회, 유기농식품재배농가 등

○ 아토피 친화적 생활환경 구축
- 학교중심의 아토피 안심학교(어린이집 등 포함)운영
·선정학교 아토피 환아 실태조사 및 아동 관리(자체 관리 매뉴얼 보급)
·보습제 등 아토피 용품 배부 및 친환경적 아토피제품 만들기 체험교실 운영
·급식 식자재의 친환경 먹거리 의무화(유기농 및 야채식단)
- 아토피질환 악화요인 관리 위한 생활환경 개선

○ 저소득층 아토피 치료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아토피질환자 중 의료취약계층
- 의료기관에서 아토피 치료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연간 개인별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2) 중·장기적 방안

○ 폐교를 활용한 아토피퇴치학교 운영
- 산촌지역의 적정한 폐교를 선정 자연친화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전문아토피 퇴치, 체험장으로 운영

○ 친환경 아토피 클리닉 체험캠프 운영
- **도·농 아토피 환자가족 치유캠프 운영**(생태관광과 연계)
→ 장소 : 국립생태원, 희리산 휴양림, 판교 등고리, 심동마을, 장항송림욕장 등

○ 친환경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 판교면 등고리 마을 등 일정지역을 아토피 체험마을로 육성
- 귀농인과 함께하는 도·농 유기농 한방 체험장 운영
- 아토피 홍보관 건립 : 마을조성 단계부터 연계추진(생태관광과, 생태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연계)

○ 국립생태원 주변의 아토피환자 정주환경 조성
- 도시민이 방학과 휴가철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우리군 생태환경과 아토피 치유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토피 치료타운 조성**
· 아토피 환자 체험 숲(편백나무 숲→ 아토피 치유에 좋은 피톤치드 다량 방출)
·죽염을 활용한 아토피전용 스파건립
·아토피 환자 치료센터(양·한방협진)
- **아토피 관광 펜션 및 민박촌 조성**

☐ 기대효과

○ 아토피 치유에 좋은 자연환경이 풍부한 서천군이미지 부각됨
○ 우리군 생태도시와 친환경을 활용한 시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